

연구소 소식

일본 전문가 방문단 간담회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2월 7일(화)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우베 프론티어 대학교(Ube Frontier College)의 카즈노리 이토(Kazunori Itoh)교수, 도호쿠 대학교(Tohoku University)의 미츠 하루 타나카(Mitsuharu Tanaka) 부교수, 쓰쿠바 대학교(University of Tsukuba)의 유키 이네나가(Yuki Inenaga) 부교수 외 2인이 방문하였으며, 본 연구소에서는 우남희 소장을 비롯하여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 박원순 국제협력팀장, 강은진 육아지원연구팀장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일본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 교육·보육 체계를 공유하고, 한국에서 어떻게 영유아 교사 양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또한 지난 3월 22일(수)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일본여자대학교(Japan Women's University)의 토모코 니시(Tomoko Nishi)교수, 세이도쿠 대학교(Seitoku University)의 유카 노가미(Yuka Nogami)교수, 준코 이와사키(Junko Iwasaki)교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 장명림 본부장 그리고 김민지 교수(Seitoku University)가 방문하였으며, 본 연구소에서는 우남희 소장, 문무경 국제연구협력실장, 김은영 출산및부모지원단장, 그리고 박원순 국제협력팀장이 참석하였다.

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주)신세계 수탁과제 '행복한 육아문화 확산 방안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영유아기 부모 대상 육아지원 관련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고자, 전국 5개 지역 예비부모 및 영유아부모 대상 토크콘서트를 기획하였다. 본 콘서트는 저출산 시대를



를 맞아 육아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고, 처음 하는 육아에 서투르고 힘든 엄마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를 담아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라는 주제로 마련하였으며, 지난 2016년 네 번의 전국콘서트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전국에서 총 5차례로 진행된 육아콘서트는 3월 3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문화홀에서 인천지역 콘서트를 시작으로, 3월 9일 대구(신세계백화점 대구점), 3월 16일 경기1차(신세계백화점 죽전점), 3월 24일 경기 2차(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를 거쳐, 3월 28일 부산지역(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2017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3월 21일(화)에 3층 세미나실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우남희 소장을 비롯한 연구진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1차 육아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은 청탁금지법 유치원·어린이집



주제로 김아름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실장이 본 심포지엄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다.

제2차 출산·육아 지원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4월 7일(금) 외교센터 3층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2차 출산·육아 지원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2차 출산·육아 지원 포럼」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을 주제로 저출산 시대의 현주소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우남희 소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효미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청년 미혼자의 결혼 및 출산 의향과 저출산 대응 방안을, 김혜준 대표(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가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 및 발전방향을, 유해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저출산 대응 전략, 그 진단 및 방향에 대하여 주제 발표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영미 교수(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원순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준 서기관(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팀)의 토론이 이어졌다.

